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8호 [루게 제22980호] 주제 99 (2010)년 1월 28일 (목요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
한뜻으로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의 도로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평안북도의 도로들을 돌아보시였다.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책임비서 김평해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및 1부부장들이 동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현지에서 도와 도로건설지휘부의 책임일꾼들이 맞이하였다.

당의 웅대한 국토환경보호구상을 높이 받들고 도로건설에 떨쳐나선 도내 당원들과 건설자들은 대중적응용주의와 애국적헌신성을 발휘하여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해제함으로써 도로건설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여러곳을 련결하는 현대적인 도로들이 건설됨으로써 주변 일대의 풍치가 더욱 아름답게 변모되었으며 인민들의 교통상편리를 더 잘 도모하고 경제건설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새로 건설된 도로들을 돌아보시고 특색이 있으면서도 현대적미감에 맞게 훌륭히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방대한 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자체의 힘으로 끝낸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도로들은 설계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되었다고 하시면서 미래에 대한 낙관과 신심에 넘쳐 부닥치는 난관들을 과감히 극복하며 후대들에게 물려줄 또 하나의 귀중한 재부를 마련한 도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영웅적

투쟁기풍을 거듭 높이 치하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아름다운 도로건설공사를 짧은 기간에 도자체의 힘으로 훌륭히 끝낸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분투하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힘의 빛나는 발현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최근년간 평안북도에서 도로건설과 산림조성을 비롯하여 국토환경보호사업에서 놀라운 전변을 이룩하였다고 하시면서 도안의 도시와 마을, 강하천과 도로들이 규모있고 아름답게 꾸러진 이 자랑스런 현실은 우리 당의 국토관리정책의 정당성

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실증해주는 동시에 자기의 힘으로 이 땅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기어이 건설하고야말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의 신념과 의지에 대한 일대 시위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의 면모를 주체의 요구대로 일신시키는것은 강성대국건설에서 중요한 사업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고 풍요하게 꾸리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의 면모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꾸리기 위한 자연개조사업이며 조국의 무궁

한 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일뿐아니라 강성대국건설위업수행의 중요한 고리의 하나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국토와 자원, 자연환경을 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적극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하게 함으로써 그들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조건을 마련해주는 중요한 사업인것만큼 전당, 전군, 전민이 이 사업을 계속 즐기게 내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특히 산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리적조건으로부터 골길건

설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들의 생활상편의를 도모하는데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높고 험한 산간지대들에 골길을 많이 건설하여 도로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국토관리사업은 그 대상과 규모가 방대하고 시기성과 장기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광범한 군중을 동원하여야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당 및 정권기관들에서는 주민들속에서 국토관리사업이 가지는 중요성과 의의를 깊이 인식시켜 그들이 이 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게 하며 일꾼들이 앞장에 서야 한다고 지적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국토관리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려 더욱 아름답고 살기 좋은 조국강토를 후대들에게 물려주자고 간곡히 말씀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은 강성대국건설대전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하시면서 선군의 기치따라 역세계 전진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정신력과 무궁무진한 힘이 있기에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위업은 반드시 빛나게 실현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평안북도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나라의 통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쳐가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대한 뽐어오르는 감사의 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국토관리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 굳은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평안북도 의도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5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보도하였다.

라오스 통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13대 연합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태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상세히 전하였다.

우간다국가라디오방송, 케냐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비무장지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회철발전소건설장, 제령광산, 케냐강장년 2호발전소건설장, 강동약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과 오중홀 7번대청호를 수여받은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명공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케냐의 인터넷홈페이지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회철발전소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사진을 보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15일부터 21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도하였다.

중국의 홍콩 봉황위성TV방송, 인터넷홈페이지 《동북망》, 로씨야의 소리방송, 《에르베가》 통신, 인터넷통신들인 《가제다. 루》, 《로스발트》, 《브즈글라드》, 라오스 통신, 수리아신문 《티슈린》, 케냐의 신문 《알 아흐바르》, 케냐주 체사상연구 및 구원소조와 백두산 케냐조선친선협회의 인터넷홈페이지 《조선-백두산》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일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특대공군합동훈련을 보신 소식과 조선인민군 제534군부대산하 10월 7일태지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조선인민군 제324대연합부대에 출발전대공원을 관람하신 소식을 전하였다.

브라질신문 《오라 두 브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강동약전기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사진과 함께 보도하였다. 한편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회의 국제연합인터넷홈페이지 《주체-선군》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진을 모시고 그이께서 오중홀 7번대청호를 수여받은 근위 서울류경수제 105명공사단관하 구분대를 시찰하신 소식을 실었다.

《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 출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집대성한 《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제 57 (1968)년 10월부터 주제 60 (1971)년 2월까지의 시기에 발표하신 47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있다.

로작들이 발표되던 기간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천명한 령도밑에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업화의 역사적업적이 완수되고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하여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집회, 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조선년들속에서 혁명전투교양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에서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들을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투로 무장시킬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백두의 혁명전투는 세대와 세대들이 이어주는 혁명의 명맥이며 우리의 오늘과 래일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힘의 원천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로작들에서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가자면 백두의 혁명전투로 철저히 무장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혁명전투교양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방도를 대하여 명철한 해답을 주시였다.

로작들에는 또한 혁명전투적외 혁명사적지들을 혁명전투교양의 학교로 꾸리고 사적물보존관리사업을 개선할데 대한 문제 등이 밝혀져있다.

《인민군대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일데 대하여》, 《사업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군대안에서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움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에는 인민군대당조직과 정치기관들의 역할을 높이고 사업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이 제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로작들에서 현지지도단위들을 잘 꾸리고 적극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

령도업적을 절절히 옹호고수하고 더욱 빛내어나감으로써 인민군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기 위한 방도를 명시하시였다.

로작들에는 모든 군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투교양, 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등을 잘하여 그들이 혁명군대의 군인다운 중모를 갖추도록 할데 대한 내용이 담겨져있다.

인민군대에서 혁명전투적, 혁명사적지참관을 통한 교양사업과 문학예술작품들을 통한 다양한 선전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는 문제를 비롯하여 사상교양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올데 대한 과업이 로작들에 반영되어있다.

《당의 조직사상적기조를 튼튼히 다질데 대하여》, 《당일군은 사람들 잘 알아야 한다》, 《일군들은 사업방법과 작품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일군들은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하여야 한다》 등의 로작들에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조를 강화하고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품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방도들이 밝혀져있다.

로작들에는 당의 조직사상적기조를 더욱 다지며 모든 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추진하시는 과정에 창조적이고 실천적모범을 보여주시 사업방법과 작품을 따라배워 늘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일할데 대한 사상이 명시되어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음악창작방향에 대하여》,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영화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킬데 대하여》, 《작가들은 아는것이 많아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를 비롯한 여러 로작들에서 문학예술 특히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답을 주시였다.

로작들에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로 완성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와 영화창작에서 생활을 진실하게 그릴데 대한 문제, 영화음악을 우리 식으로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 현실을 반영한 영화를 많이 창작할데 대한 문제 등 영화창작사업에서 나서는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이 제시되어있다.

선집에는 이밖에도 철도운수사업을 개선하고 선진화하는데서 출현물의 역할을 높이며 민족문화유산들을 옹호하고 민족적 특색을 가진 것으로 평가치리할데 대한 문제 등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리론실천적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고전적로작들이 편찬되어있다.

《김정일선집》 제3권 (증보판)은 혁명전투교양의 불꽃이요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하고 당장년 65돛을 승리의 대추경으로 빛내이기 위한 올해의 총공세에 떨쳐나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래양절기념 및 2.16경축 기내준비위원회 결성

래양절기념 및 2.16경축기내준비위원회 결성식이 18일 프나크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초상화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초상화가 모셔져있다.

주체사상연구 기내준비위원회를 비롯한 기내의 여러 주체사상연구조직 인사들과 성원들이 결성식에 참가하였다.

주체사상연구 기내준비위원회 위

원장은 결성식에서 한 연설에서 래양절기념 및 2.16경축준비위원회를 결성하는것은 기내인민들이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김정일각하의 선군혁명도업적들을 깊이 체득하며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영웅투쟁정신을 따라배우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고 말하였다.

결성식에서는 준비위원회위원으로 주체사상연구 기내준비위원회

위원장 리야드 살루브가, 부위원장들로 기내 김일성동지연구소조 책임인자 아브둘라이에 폼페와 기내주체문학사상연구회 회장 아브둘라이에 디알로가 선출되었다.

준비위원회는 1월 20일부터 4월 17일까지를 기념 및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집회, 토론회, 강연회, 사진전시회 등 다채로운 정치문화행사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가 인디아공화국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뉴델리

인디아공화국 대통령 프라리바 데비싱 파틸각하

나는 인디아공화국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과 당신을 통하여 친선적인 귀국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에 맞게 더욱 확대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귀국인민에게 보다 큰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제99 (2010)년 1월 25일 평양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단마르크왕국 특명전권대사 신임장 봉정

【평양 1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동지에게 오스카르 게오르그

호이네스 주조 단마르크왕국 특명전권대사가 2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신임장을 봉정하였다.

여기에는 궁서용 위무성 부상과

단마르크왕국대사관 성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는 신임장을 받은 다음 대사와 대화를 하였다.

공동시설 학습을 심화시켜 신천군 새날리당위원회에서

이와 함께 일군들부터 학습을 하여 공동시설의 기본사상과 내용을 환히 깨닫고 그를 통한 교양사업을 실속있게 벌려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염마전 어느 한 작업반에 나간 리당위원회의 일군은 작업의 습관을 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의 주공전선인 농업전선에서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빛나게 구현하여 농업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일데 대한 공동시설의 내용을 가지고 해설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주체농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유기능을 비롯한 새로운 영농방법과 영농기술을 받아들여 올해농사에서 풍작을 이룩하자고 절절히 호소하였다.

지금 이곳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은 뜻깊은 올해에 높은 알파 생산성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성대국건설구상을 충직하게 받들어갈 결의를 다지면서 당면한 농사차비에서 혁신을 일으키려나가고있다.

로동통신원 조경심

인민적사업작품을 구현하는데서 나서는 요구

우리 당은 올해공동시설에서 혁명적근로선의 요구대로 군중의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고 실현하며 군중의 힘에 의거하여 모든 문제를 풀어내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였다.

모든 일군들이 민심을 틀어쥐고 민생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 인민의 참된 복부자, 소탈한 품성과 고상한 인성미를 지니고 대중의 존경과 사랑을 받는 신망있는 지휘관이 되어야 한다는것이 현실시 우리 당의 요구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품을 가지는것이 중요합니다.》

일군은 혁명의 지휘선원이다. 대중을 당정책관철에 힘있게 불려 일으키고 혁명과 건설을 성과적으로 전진시켜나가자면 일군들이 인민적인 품모를 지녀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일군은 인민의 심부름꾼이며 인민의 복부자이다. 광범한 대중과의 사업을 전제로 하는 일군에게 있어서 인민적인 품모는 모든 사업성과의 출발적기초로 된다. 일군들이 우리 당의 혁명적근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도, 높은 사업실적으로 당과 수령의 믿음에 보답하는 비결도 승고한 인민관을 지니고 인민적사업작품을 구현해나가는데 있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총공세는 인민의 행복을 찾아우기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모든 전선에서 다시한번 대고조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와야 할 오늘의 격동적인 현실은 우리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품을 지니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정신력을 최대한으로 분출시켜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언젠나 과

측을 보면 나의 병사들이 있고 우측을 보면 나의 인민들이 있으며 기운을 보면 나의 일군들이 있다고 하시며 대고조진군을 승리에 이끌어나가게하신다. 모든 일군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를 가슴깊이 새기고 인민적사업작품으로 대중을 공공세로 고무해주고 힘있게 떠미는 참다운 혁명의 지휘선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오늘의 대고조시대에 일군들이 인민적사업작품을 구현해나가는데서 중요하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도 민심을 틀어쥐고 민생에 맞게 모든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최고로 《세기와 더불어》에서 민심은 천심이며 민생은 인민들의 지향과 소에 찾아오시어 추진 현지말씀을 받들고 떨쳐나선 대중의 열의는 대단하였다. 일군들은 대중의 정신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전투지휘를 능숙하게 해나갔다. 생산자대중속에 나오는 창발적인견과 과학기술발견의 싹을 귀중히 여기고 적극 밀어주으며 기술자들과의 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그들이 탐구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게 하였을뿐 아니라 기

업소종업원가족들의 마음까지도 주체철생산체계완성을 위한데로 이향되도록 하였다. 모든 작업장에서 진공적으로 벌어진 화신식 선전선동과 정치사업은 대중의 혁명적열의를 고조시키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난해 12월 선진제강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면서 대중의 정신력을 발동하여 주체철생산체계를 완성하였을뿐 아니라 새로운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도입함으로써 강철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기업소당 및 행정일군들의 수고를 치하하시고 그들의 사업기공을 모든 단위를에서 따라배울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대중의 마음을 환히 깨닫고 그에 맞게 사업을 전개해나가는것이 이것이 대고조시대 일군들이 지켜야 할 인민적사업작품의 중요한 내용이다. 일군들이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지향과 심리, 마음을 잘 알고 올바른 방법론과 묘술로 대중의 사상성면목을 분출시켜나갈 때 모든 사업, 모든 단위에서 대고조의 승리가 이룩될수 있다.

《그것은 다음으로 소탈한 품성과 고상한 인성미를 지니고 대중과 교락을 같이해나가는것이다.》

일군의 품성과 인성미는 대중과의 사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인민들은 격식과 틀이 없이, 허물없이 자기들을 대하고 언제나 뜨거운 인성미로 자기들의 생활을 돌봐주는 일군을 존경하며 따르는 법이다. 인민들과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누고 대중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부부하며 대중의 신망이 높은 일군이 현실시 우리 당이 바라는 참된 일군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참된 애국

자, 시대의 꽃으로 높이 내세워주시는 만포방사광장 지배인 주복순동무는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이다. 주복순동무는 생산현료를 구입하기 위해 먼곳에 갔다가도 부모님에 아이들을 보면 품에 안아 곱장으로 데려와 그들을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었다. 셋을 이 한번 생겨도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며 그들에게 안겨주고 부모 잃은 제대군인의 결혼상도 차려주었으며 자기에게 차려진 살림집도 기술자에게 양보하였다. 이런 고결한 인격과 뜨거운 사랑을 지닌 일군을 어찌 《우리 어머니》, 《우리 지혜인》이라고 따르지 않을수 있겠는가. 오늘 우리 나라에는 주복순동무처럼 소탈한 품성과 고상한 인성미를 지니고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신망있는 일군들이 수없이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언젠나 인민들을 하느님처럼 여기시였으며 그들과 허물없이 무릎을 마주하고 나라일도 의논하시고 걸린 문제들도 물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는 어머니수령님의 인민적품모를 떨치지도 두려워하고 그대로 따라배워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으며 정력적인 현지지도의 길에서 수령님의 평도풍모를 그대로 구현해나가게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사업작품을 우리들이 삼고 대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데 어울려 고향을 같이해나가는 여가에 대고조시대 일군의 참모습이 있다.

모든 일군들은 당의 혁명적근로선을 틀어쥐고 인민적사업작품을 철저히 구현해나감으로써 대고조시대 혁명의 지휘선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야 할것이다.

장철균

